

특별기획

# 군산시, 관광광역화 추진

### 근대문화·고군산군도·전북투어패스·서천·백제문화권 연계상품 개발 올해부터 5년간 군산-전주-부안-고창 잇는 시간여행 상품개발 중점 추진

군산시가 숙박·레저·관광 상품 개발과 2017년 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관광광역화'를 추진한다.

'관광광역화'는 근대역사 중심의 당일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레저·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군산시 대표 관광상품인 근대문화탐방과 고군산군도 해양체험 연계상품 개발, 도내 14개 시·군 전북투어패스 구축사업 연계, 서천·백제문화권(부여, 공주) 연계 상품 개발이 주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비 18억9000만원을 투입해 5년간 추진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인 군산-전주-부안-고창을 잇는 시간여행 상품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표관광지의 양적

인 근대문화지구와 고군산군도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근대문화지구의 경우 지역자원(진포대첩)과 ICT를 융복합한 '디지털 체험'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진포해양공원 내 위병함에 사업비 5억3700만원을 들여 '진포대첩 합포해전 모션 플랫폼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체험관 구축'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가 와이파이 및 비콘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표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체험형 관광객을 위한 야간경관조성 등을 추진해 근대문화지구에 불거려, 체험

거리를 조성하여 즐거운 군산을 선택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전면개통에 대비해 6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군산 종합관광안내센터, 해수욕장 관광편의시설, 망주봉 수변공원, 섬의 특성을 살린 소공원 조성 등으로 관광편의시설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근대문화탐방과 고군산 해양체험 콘텐츠 개발과 체험거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간여행 전채코스(군산-전주-부안-고창) 개발과 금강주변 서천·백제문화권 연계상품 등의 개발로 체험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군산시, 국가 SOC 연계 사업 추진

### 동백대교 연결 사업·대야역 이전 등

군산시가 국가 SOC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백대교 건설사업 및 철도망 구축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군산시는 동백대교 해양 IC 확장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교차로 지점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올해에는 최근 개통된 군장산단 연안도로와 연계한 주요 교차로 지점의 구조 선형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동백대교가 개통된 후 군산 국가산업단지 진입과 시내방향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해양로(산단진입도로) 확장공사(680억원 소요)를 대선 공약사업 및 신규 국가사업으로 적극 건의해 기반시설 인

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14.3km)과 군장산단 입입철도(29.9km)사업도 올해 235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2018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한 대야역 이전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여객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대야 과선교 구간 노선 우회와 신촌마을 철도 교량화 변경 등 그동안 제기된 주민 숙원사업을 사업 시행기관과 협력해 주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익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윤길우 모현동 위원장 선출

익산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지난 1월 12일 정기총회를 갖고 14대 임원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회장에 모현동 윤길우 위원장, 부회장에 함열읍 김성우 위원장, 송학동 김양신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윤길우 협의회장은 "앞으로 협의회 단합과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리더와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임원 이·취임식은 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한마당 체육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형 사업 실시로 시민들과 더불어 봉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 군산해수청, 안전항행 20억 투입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선박통항 위험지역에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군산시 옥도면 무너도 서측해상에 존재하는 수중 암초(무너도사단)에 항로표지를 새로 신설하여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소형선박들의 안전항행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항로표지시설 중 노후되거나 기능유지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군산·장항항 입출항 선박의 항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좌·우측 항로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등부표 9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 군산 내초지구 올해 지적재조사

100여 년 전에는 도서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많았던 내초동 1·6번지 일원에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군산시는 2018년 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합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22일까지 건물에 있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 대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법 운영으로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집합건물 등의 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시도 일원 3,800여 필지 지적 불합치를 해소하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230여 필지를 분할한 바 있다.

군산 내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미장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수송 1·2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한 시정 주변의 낙후된 기존 상업지역 활성화 및 통합 개발을 실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장동과 조촌동 일원 86만4천㎡가 환지방식으로 개발됐다.

시는 미장지구 내 도로 총 127개 노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다.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 도로 19km 확충·500여대 주차공간 확보·테마공원 등 18개소 조성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미장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수송 1·2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한 시정 주변의 낙후된 기존 상업지역 활성화 및 통합 개발을 실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장동과 조촌동 일원 86만4천㎡가 환지방식으로 개발됐다.

시는 미장지구 내 도로 총 127개 노

선에 연장 19km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교통흐름을 분산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상업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2개소에 총 5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18개소 9만991㎡의 테마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해 수목식재, 운동기구,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미장지구는 공동주택 부지 4개소 중 2개소가 입주했고, 잔여 부지 2개소는 건축공사가 한창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세무서 등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입주할 예정이어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및 상업지역 부지는 60여개동의 건축물이 신축중인데, 건축허가 신청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이마트 익산점, 3000만원 후원물품 기탁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주)이마트 익산점은 지난 13일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임근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기탁된 후원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근택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대상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이마트 익산점과 이마트 희망나눔봉사단은 2013년부터 매년 사회봉사활동과 지역 어르신 등을 위한 사랑의 맛데이 행사 및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올해 군산시 도로사업에 1474억 투입

군산시가 2017년도 군산지역 도로사업에 1474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군산시는 국가 추진 고군산 연결도로 무너도~장지도 구간, 동백대교 건설, 새만금 남북2축, 동서2축 도로 건설 예산확보로 차질없이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연말 군장산단 연안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분산효과와 산단 진입이동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절감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수도권 관광권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전북지역(군산)과 충청지역(서천)의 공동 생활권이 가능해져 협력과 상생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744호선 확포장(2차선→4차선) 공사로 옥구~회현간 6.7km에 50억원과 지방도 711호선 대야-임피간 4.7km에 3억원의 보상비가 투입되고, 대야 IC 병목지점 교차로 개선 등 유지관리에도 28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지방도 744호 공사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통이 되면 새만금 내측 접근성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시행 중인 총 29개 구간 중 12개 구간에 대해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올해 완공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개정~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이며, 도로개설에 124억원, 도로 소과 및 노면 정비사업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74억원이 투자된다.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도내 시내버스요금 오늘부터 인상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전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인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군산시의 시내버스요금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일반인 기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임금 등 불가인상 및 이용승객 감소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것으로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산시 운송업체의 경우 100원의 요금 인상으로 7억원의 수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